



## “빨간맛”이 발랄한 맛이라면, ‘피카부’는 섹시한 맛?”

(타이틀곡·Peek-A-Boo)

### 정규 2집 ‘퍼펙트 벨벳’으로 돌아온 레드벨벳

흥행은 ‘부담’의 다른 말로 읽힌다. “성공했다”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도 잠시, 다음을 준비하며 또 한번 성장하고 이전보다 나은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5인조 걸그룹 레드벨벳(웬다·아이린·슬기·조이·예리)은 17일 발표한 두 번째 정규앨범 ‘퍼펙트 벨벳’을 준비하며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앞서 7월 선보인 미니앨범 타이틀곡 ‘빨간맛’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했던 만큼 부담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귀엽지만 마냥 귀엽지 않은...진짜 우리의 섹시 선배님도 ‘대박 냄새가 난다’며 엄지척 대세 걸그룹이요? 좋은 선배님들 덕분이죠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퍼펙트 벨벳’ 쇼케이스에서 만난 이들은 만감이 교차한 표정이었다. 긴장과 설렘 등 여러 표정이 엮였다.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이들은 한편으로는 “이번엔 내심 자신감도 생겼다”고 했다. 차근차근히 한 계단씩 밟아오며 음악적으로 성장하며 달라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2014년 데뷔한 레드벨벳은 올해 유독 바쁘게 달려왔다. 2월과 7월, 연달아 미니앨범을 발표하며 ‘루키’와 ‘빨간맛’ 등을 크게 히트시켰다. 8월에는 첫 번째 단독콘서트까지 열며 ‘대세 걸그룹’ 자리를 굳혔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앨범을 내는 거다. 의미도 남다르다. 그만큼 2017년은 가장 많이 성장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를 돌며 공연도 하고 싶다.”(슬기)

멤버들은 저마다 다이어트 등 자기관리부터 다시 시작했다. 조이는 “다양한 방법도 시도했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며 웃었다.

레드벨벳의 ‘근거 있는’ 자신감은 ‘퍼펙트 벨벳’이라는 앨범 제목에서부터 드러난다. 이들은 “이전의 레드벨벳과는 다르고 조금 더 완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범은 타이틀곡 ‘피카부’(Peek-A-Boo)를 비롯해 총 9곡의 다채로운 곡들로 구성됐다. ‘히트메이커’ 켄지, 프로듀싱팀 더 스테레오타입스, EDM(일렉트로닉스댄스뮤직) 뮤지션 히치하이커 등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까꿍” 정도로 해석되는 ‘피카부’는 업템포 팝 장르의 댄스곡으로 젊은 세대의 쿨한 사랑 방식을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에 비유했다. 전작 ‘빨간맛’을 통해 레드벨벳의 발랄함을 강조했다면, 이번엔 한층 성숙해지고 섹시한 모습에 중점을 뒀다. 레드벨벳을 위해 이날 쇼케이스 사회를 맡았던 소녀시대 태연은 “‘대박’ 냄새가 난다”고 자랑했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짜릿한 감정을 담았다. 귀엽지만 마냥 귀엽지만은 않다. 미스터리하고 요묘한 느낌이 공존한다. 데뷔 초에는 레드벨벳이라는 이름처럼 ‘레드’와 ‘벨벳’ 오가는 콘셉트였다. 이번에는 레드와 벨벳이 공존하는 진짜 ‘레드벨벳’의 느낌이다.”(아이린)

레드벨벳 특유의 밝고 푹푹 튀는 퍼포먼스도 불만하다. 화려한 손동작이 포인트인 춤은 “특이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따라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춤은 ‘빨간맛’에 이어 유영 안무가인 카일 히나카미가 맡았다.

이들의 변화는 미국 음악전문매체 빌보드도 “새로운 스타일”이라며 관심을 드러냈다. 빌보드는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색깔을 잘 살려낼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가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레드벨벳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케이팝 대표 걸그룹으로 꼽힌다. 트와이스와 함께 걸그룹 세대교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세대 걸그룹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소녀시대의 리더 태연이 쇼케이스의 사회를 맡으며 레드벨벳에게 힘을 실어준 것도 하나의 증거다.

“태연 선배님이 한 번도 MC를 해주신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드린다. 그만큼 우리를 챙겨주고 애정이 많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다. ‘세대교체’라는 표현은 너무 영광이지만,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릴 수 있을까’ 싶다. 그저 우리만의 색으로 ‘역시 레드벨벳’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웬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레드벨벳이 ‘루키’ ‘빨간맛’에 이어 또 한번 흥행에 도전한다. 정규 2집 ‘퍼펙트 벨벳’은 기존 레드벨벳의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에 섹시하고 성숙한 모습을 더했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 연예뉴스 HOT 5

#### 송중기·박보검 ‘2017 MAMA’ 참석

송중기·박보검이 종합콘텐츠기업 CJ E&M이 개최하는 음악 시상식 ‘2017 MAMA’(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에 출연한다. CJ E&M은 20일 “송중기는 12월1일 열리는 ‘2017 MAMA 인 홍콩’, 박보검은 11월29일 열리는 ‘2017 MAMA 인 제팬’의 호스트로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최고의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등에 출연한 박보검은 ‘2016~2017 아시아 투어 팬미팅’을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팬들과 만났다. 올해 ‘MAMA’는 기존행사서서 확대해 ‘MAMA 위크’를 마련, 일주일간 베트남-일본-홍콩 3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 슈퍼주니어 ‘블랙수트’ 대만차트 1위

6일 발표된 슈퍼주니어 8집 ‘플레이’의 타이틀곡 ‘블랙수트’가 대만 음악사이트 KKbox 한국 음악차트에서 부동의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KKbox 한국음악 주간차트까지 1위에 올라 ‘한류 제왕’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슈퍼주니어는 대만 KKbox 한국음악차트를 통해 2010년 6월 첫 주부터 2012년 9월 셋째 주까지 총 12주간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바 있어, 신곡 ‘블랙수트’가 써내려 갈 새로운 기록에 관심이 모아진다. 슈퍼주니어는 새 앨범 20만장 판매 돌파 공약으로 20일 오후 10시 45분 CJ오쇼핑에 출연해 ‘블랙패딩’을 판매했다. 이날 슈퍼주니어는 재치 넘치는 입담과 각종 개인기로 예능프로그램 못지않은 흥미를 안겼다.

#### 나나, 플레디스 엔터와 재계약

에프터스쿨 출신 나나(임진아·26)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20일 “2009년 데뷔 이후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나나와 함께 해온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재계약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배우뿐만이 아닌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나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나나는 2009년 에프터스쿨로 데뷔했고, 3인조 유닛 오렌지카라멜 멤버로도 활약했다. 지난해 tvN 드라마 ‘굿 와이프’를 통해 연기자로 변신했고, 22일 개봉하는 영화 ‘꾼’에도 출연했다.

#### 이하늬, 온스타일 ‘갯잇뷰티’ 하차

연기자 이하늬가 3년 동안 진행해온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의 뷰티 프로그램 ‘갯잇뷰티’에서 하차한다. 이하늬는 2015년부터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외모 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시청자에게 전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0일 “프로그램 진행은 비록 그만두지만 출연료를 여성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며 “이하늬가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서 온 만큼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 신장에 힘쓰고 있는 단체들에 힘을 보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앞으로 연기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화 ‘부리더’와 ‘침묵’에 출연해 인상 깊은 연기를 보이면서 실력을 증명했다.

#### 매드타운 버피, 해병대 입대

그들 매드타운의 버피가 20일 해병대에 입대했다. 버피(김주현·22)는 이날 경복 표창에 위치한 해병대 신병훈련소로 입소했다. 7주간 훈련을 받은 뒤 자대배치를 받는다. 버피는 입소를 앞두고 인스타그램에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짧은 머리로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버피가 속한 매드타운은 전 소속사 GNI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안타깝게도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멤버 대원과 이견은 현재 방송중인 KBS 2TV ‘더유닛’에 출연중이며, 다른 멤버들은 배우 전향을 준비하거나 다른 활동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드타운은 2014년 데뷔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